

16/03/13(주) 주일예배 / 제목 :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까(눅10:17~20) p.110

(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순종하여 각 동네로 둘씩 둘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갖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를 만나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와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이 날만하지요. '와~, 내가 귀신과 겨루어 이겼어! 내게도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모두가 사명을 완수한 자부심과 자신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이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기뻐하여야 할 바른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잘못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본론** /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므로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을 얻으므로 귀신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짓값으로 우리를 묶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사람들의 죄입니다. 우리 죄로 우리를 묶어 놓고 죄를 통하여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항상 마귀에게 묶여 종살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하실 때 보혈과 그 은혜로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말한 것처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도 "(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대체 이들이 각 동네로 가서 어떤 체험을 했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토록 목숨 걸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동네에 가서 귀신 들린 자나 귀신 때문에 병든 자를 만났겠지요. 제자들은 그 귀신과 정면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제자들이 싸워 귀신을 항복시킨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싸워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지에서 귀신을 항복시키니까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그 악의 왕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에 의지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항복시키는 감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험까지 했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제압하는 일을 담대하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탄을 떨어뜨리는 권세를 칠십 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창세기 3:15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인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 즉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와 귀신의 모든 능력을 짓누를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귀신 쫓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며, 각종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놀라서 항복하며, 마귀 사탄은 두려워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지는 알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고 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으나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는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으면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쳐야만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찌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명령만 해도 물러갑니다. 목소리 크기나 내 능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명령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면 귀신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구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나 귀신의 권세에 눌려 지낼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이나 죄에 눌려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민이나 문제에도 눌려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실패나 상처가 있습니까? 고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귀신은 행복하고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심으로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자, 복음의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대리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은 것보다 능력 받은 것이 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한 것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 대단한 활약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큰 능력으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교만해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때 큰 능력을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한때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큰 능력이 없어도 참된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호적에 기록됩니다. 본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호적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은 호적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다가 죽을 때 사망신고가 되면서 호적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 땅에 호적등본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영계에도 두 가지의 호적부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책들이라고 표현된 책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권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라고 한 것은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생명 얻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 권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원받는 길 좁고 험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가 적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생명책은 여러 권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 적힌 책이고 다른 책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책에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사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27절에서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계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내 뜻대로 만사가 형통하여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에서 크고 좋은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되고 그 기쁨이 날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가?

-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